

<서평>

판소리에 담긴 우리의 신학을 찾아서

『판소리의 신학적 풍경』

양재훈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352쪽

정승우*

1. 들어가는 말

최근 출간된 양재훈 교수의 『판소리의 신학적 풍경』은 여러모로 필자에게 충격을 던져준 책이라 할 수 있다. 일찍부터 판소리에 매료되어, 옛 명창들의 소리를 LP 복각판으로 즐겨 듣던 차에 이 책의 출간 소식은 무척이나 반가운 것이었다. 사실 선수를 빼앗긴 느낌마저 들었다. 일찍이 민중 신학자 서남동이 시인 김지하가 판소리에서 차용한 <장일담>에 관심했듯이, 박동진의 <예수전>은 우리 시대의 한국적 예수를 재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텍스트로 간주될 수 있다. 우리 시대의 맥락에서 예수를 비롯한 성서의 이야기들이 한국적 예술 양식인 판소리로 어떻게 재현될 수 있는가를 이 책은 다루고 있다.

『판소리의 신학적 풍경』은 모두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은 판소리를 신학적 전망에서 살펴보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 연세대학교 신약학 교수

모색한다. 저자는 토착화 신학의 관점에서 판소리가 지니는 의의를 점검하며, 다음 장에서 전개될 박동진의 성서 판소리를 다룰 4가지 방법론을 소개한다. 2장은 판소리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독자들에게 판소리의 역사와 발전, 그리고 판소리에 등장하는 용어들을 쉽게 설명한다. 이 장을 통해서 독자들은 판소리의 기원과 형성에 다양한 연구들을 소개 받을 수 있으며, 판소리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접하게 될 것이다.

3장부터 독자들은 본격적으로 박동진의 창작 판소리에 관한 저자의 신학적 분석을 접하게 된다. <예수전> 1부, <구주탄생>과 2부, <부활가>에 담겨 있는 다양한 풍경들을 저자는 현대의 신약학 연구에 터하여 그려내고 있다. 4장에서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 이야기를 판소리로 만든 <팔려간 요셉>을 앞 장에서 사용한 동일한 방법론으로 다루고 있다. 5장에서는 <모세전>을 출애굽기와 비교하며, 이 창작 판소리가 지닌 문학적, 역사적, 예술적, 신학적 풍경을 다루고 있다. 6장은 저자의 해석학적 전망을 엿볼 수 있는 단락이다. 판소리라는 지극히 한국적인 예술 양식이 지니는 보편적 의미를 살피는 동시에, 현재적 의의를 모색한다.

2. 성서 이야기와 판소리의 유사성과 사회적 기능

19세기 역사 비평학은 성서가 유대인들의 다양한 구전 전승(oral tradition)의 결집물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궁켈을 필두로 디벨리우스와 볼트만과 같은 성서학자들은 성서가 다채로운 구전 장르들로 구성되었다는 것과 이런 전승들이 각각의 삶의 자리(Sitz-Im-Leben)를 배경으로 결집되고 발전하였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성서에 편집된 문서들은 한 두 사람의 천재적인 작가의 창작물이 아니라, 무수한 민중들의 입과 입을 거치면서 형성된 일종의 집단 창작물이라는 것이다. 오경(Torah)의 4문서설과 복음서의 Q자료 등은 이러한 사실을 보여준다.

성서 전승의 형성 과정과 유사하게 가장 한국적인 민중 예술의 총화로 간주되는 판소리도 민간에서 유통되던 다양한 서사 무가와 전문 소리꾼들의 창작 활동을 통해 형성되었다. 신채효가 정리한 판소리 여섯 마당, <춘향가>, <심청가>, <수궁가>, <홍보가>, <적벽가>, <변강쇠가>와 같은 작품들에 등장하는 가락과 사설들을 살펴보면 다양한 전승 단계를 거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성서와 판소리의 유사성은 단지 오랜 기간 구전 과정을 거쳤다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는다. 그 내용에서도 고난과 역경의 시대를 신앙과 풍자로 견디어 낸 히브리와 조선 민중들의 애환이 담겨 있다. 가령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 이야기에는 그것을 기록한 초기 기독교 민초들의 삶이 반영되어 있다. 마가의 예수 이야기에는 70년대 유대-로마 전쟁의 참화로 고통당하던 초기 기독교인들의 희망이 투영되어 있다. 마가의 주된 신학적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수난의 제자도(the discipleship of suffering)라 할 수 있다. 마가는 3차례에 걸쳐 예수의 수난을 예고하며(8:31, 9:31, 10:33), 장차 제자들의 받을 고난을 암시한다. 그들은 예수의 수난 속에서 자신들의 고난을 오버랩시키며 신앙으로 자신들의 삶을 합법화하고 있다. 또한 요한 계시록은 로마 제국의 박해를 묵시 사상의 전망에서 정당화하며 현재의 고난을 상징 속에서 초극하고자 했던 초기 기독교인들의 눈물겨운 투쟁이 자리하고 있다. 이처럼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예수의 수난과 자신들의 현재적 고난은 서로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판소리의 태동과 발전의 삶의 자리도 민중들의 고단한 삶과 깊은 관련이 있다. 우리는 판소리의 수많은 대목에서 현세의 고통을 풍자와 해학으로 넘어 서고자 했던 조선 민중의 자기초월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18-19세기 조선 왕조의 해체기에 벌어진 삼정의 문란과 탐관오리들의 가렴주구에 시달린 조선 민중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판소리와 같은 민중 예술을 통해 승화시키고자 했다. 예를 들어 <적벽가>의 유명한 대목인 ‘군사설움타령’은 권력자들이 일으킨 전쟁으로 인해 고통 받는

민중들의 삶을 처연한 가락에 실어 노래하고 있다. 이 대목은 삼국지의 유명한 적벽 대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강제 군역에 시달린 19세기 조선 민중들의 한 많은 삶의 토로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성서와 판소리의 이야기는 시대적 배경은 다르지만 모두가 지배자들이 만들어낸 부조리한 역사의 피해자들인 민중들의 한 많은 경험과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보편적 희망을 주된 테마로 삼고 있다. 탐관오리의 대명사인 변학도의 수청을 거부한 춘향의 고난은 당시 조선 민중들의 겪고 있는 수난을 대표하고 있다.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는 예수의 수난 이야기도 로마 제국의 압제 속에서 신음하던 팔레스타인 민중들의 고난을 상징한다. 또한 이몽룡의 어사 출두와 예수의 부활 이야기는 한 많은 민중들이 꾸었던 메시아적 희망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판소리와 성서는 기억과 전승이라는 주요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한다. 전통사회에서 이야기는 한 세대의 윤리와 가치관을 다음 세대로 전승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아브라함과 모세 이야기는 유대 민족의 근원 신화로 기능하면서 유대 사회의 정체성을 부여한다. 토라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출애굽 전승은 시대를 통해 전승되며 그 의미를 당대의 맥락에서 끊임없이 새롭게 재현한다. 가령 폰 라드(von Rad)가 발견한 신명기 26장 5-9절에 기록된 고대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은 훗날 바벨론 포수기의 경험 속에서 새롭게 기억된다. 또한 잠언과 전도서와 같은 지혜 문학은 유대교의 윤리와 인생관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려는 목적으로 기록되었다. 판소리도 민중들의 전통적 가치와 윤리를 이야기와 노래에 담아 후대에 전하고자 하는 사회적 동기를 지닌다. 일례로 <춘향가>는 여성의 유교적 정절을, <심청가>와 <홍보가>는 전통사회의 주된 규범인 효와 형제간의 우애를 주제로 삼고 있다.

3. 성서와 판소리, 두 이야기의 합류

성서와 판소리가 지니고 있는 유사성과 사회적 기능에 주목한 양재훈 교수는 박동진이라는 우리 시대의 걸출한 소리꾼의 창작 판소리를 현대 성서학의 연구 방법을 동원하여 재해석한다. 박동진은 60년대 후반에 <적벽가> 완창으로 유명한 우리 시대의 소리꾼이었다. 특히 그는 성서의 이야기 중에서도 민중 해방적 주제를 가장 강하게 내포하고 있는 모세와 예수 이야기를 전통 소리극인 판소리로 재현하여 한국적 토착화의 중요한 실례로 보여준 인물이다. 바로크 시대에 작곡된 바하와 헨델의 오라토리오, <마태 수난곡>이나 <메시아>에는 익숙하게 반응하면서도, 판소리 <예수전>을 여전히 낯설게 대하는 우리의 문화적 식민성을 양 교수는 진지하게 반성한다. 바하와 헨델의 작품들이 음악의 정전(canon)으로 간주되는 것은 문화제국주의의 산물일 뿐이라고 그는 생각한다. 서양 것은 모두 우월하다는 식민성에서 한국교회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 개신교회들이 백악관을 향해 보이는 시대착오적인 짝사랑은 이러한 식민성의 증후를 여실히 보여준다. 한국 개신교회는 여전히 18-19세기에 서구인들의 신앙 체험을 반영한 찬송가를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사용하고 있다. 이 또한 한국교회가 스스로 내면화한 식민성의 결과이다. 지난 세기 한국인의 정서와 신앙 경험을 반영한 찬송가를 만들고, 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려는 노력이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서양의 음악만을 보편적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사회에 탈식민주의적 관점에서 박동진의 성서 판소리를 재해석하고자 하는 양 교수의 진지한 노력은 무척이나 반가운 일이다. 더욱이 그의 시도는 우리 것이 좋다는 국수주의적 논리를 넘어 문화의 개방적 교류와 혼종성을 강조한다. 한류의 국제화를 이야기하는 시대에 양 교수의 이러한 성찰은 시의적절한 것이다.

앞서 이야기 한 대로 양 교수는 성서와 박동진의 창작 판소리가 지니는 보편성에 주목한다. 더 나아가 그는 박동진의 창작 판소리와

성서의 민중 이야기를 합류시켜 이해하려고 시도한다. 이런 점에서 그의 작업은 60-70년대 민중 신학과 토착화 신학의 담론을 계승하고 있다. 그의 시도는 70-80년도 서남동, 안병무, 유동식, 현영학, 김경재와 같은 1-2세대 민중 신학과 토착화 신학자들의 전망이 여전히 유의미하며 소중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모세 이야기와 예수 이야기와 같은 민중 해방적 스토리를 판소리의 양식으로 재현한 박동진의 작품들을 해석학적으로 분석하려는 양 교수의 시도는 서남동의 ‘두 이야기의 합류’라는 개념을 차용한 듯하다. 출애굽기와 같은 성서의 민중 전승과 동학과 같은 우리 역사 속의 민중 해방적 이야기를 합류하여 우리 시대의 유의미한 신앙 실천을 모색한 서남동의 해석학적 선견을 양 교수는 계승하고 있다. 또한 마가복음의 전승 주제를 오클로스라는 팔레스타인의 민중에게서 발견했던 안병무의 민중신학적 전망을 양 교수는 판소리, <예수전>에서 발견한다.

4. 성서 판소리를 바라보는 4가지 시선

양재훈은 박동진의 창작 판소리, <예수전>, <모세전>, <팔려간 요셉>을 신학적 분석하기 위해 4가지 전망을 사용한다. 문학적 풍경, 역사적 풍경, 예술적 풍경, 신학적 풍경이다. 이러한 그의 작업은 성서를 이해하기 위한 중세 신학의 4층적 해석과 유사하다. 중세 시대에는 성서 본문이 지닌 다층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텍스트의 4가지 층위를 살펴보았다. 먼저 성서 본문의 문자적 의미를 살핀 후, 역사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했다. 더 나아가 본문의 도덕적 의미와 영적 의미를 찾고자 했다. 이러한 성서 해석을 학자들은 중세의 4층적 성서 해석이라 부른다. 현대의 문예 비평의 대가 노드랩 프라이는 이러한 중세의 성서 해석 방법을 현대 문학의 비평 방법으로 부활시키기도 했다.

양 교수가 박동진의 창작 판소리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4가지 전망은 전통적인 성서 해석학의 방법론에서 배운 것이라 추정된다. 미국과 영국에서 오랫동안 유학한 신약 학도로서의 양 교수의 이력이 이러한 추정을 가능케 한다. 따라서 박동진의 창작 판소리를 바라보는 그의 전망은 단편적이지 않고 풍부하다. 역사를 통해 텍스트에 관한 독선적이고 폐쇄적인 해석이 저지른 문제점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양 교수의 전망은 안전할 뿐 아니라, 보다 풍성한 해석학적 전망을 제시하기에 충분하다. 그럼, 양 교수가 사용하고 있는 전망들을 비판적으로 살펴보자. 그는 박동진의 창작 판소리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판소리 사설이 지니고 있는 문학적 성격을 살펴본다. 그는 이를 문학적 풍경이라 부른다. 다시 말해 박동진의 창작 판소리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이 어떻게 성서의 해당 본문들과 문학적 상관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가령, <예수전>에 등장하는 예수의 탄생 이야기가 성서의 본문을 어떻게 차용하고 새로운 맥락에서 재해석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가령 박동진의 <예수전>에 등장하는 서사적 구조와 마태와 누가 복음서가 전하는 예수의 탄생이야기가 어떻게 같고 다른지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박동진이 복음서의 예수 탄생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 시대와 공명시키고자 하였는가를 밝혀낸다. 탄생 이야기를 둘러싼 현대 신약학계의 풍부한 논의들을 토대로 양 교수는 <예수전>에 취사선택된 텍스트들을 살피는 동시에, 이러한 편집 작업 이면에 자리한 의도를 찾아낸다.

그러나 텍스트의 의미는 문학적인 관점에서만 파악될 수는 없다. 이 때문에 현대의 성서학 연구는 텍스트가 생산된 시대적, 역사적 배경을 중요시한다. 모든 텍스트를 적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생산된 역사적 문맥을 살펴야 한다.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지 못한 텍스트 이해는 필연적으로 시대착오적 해석(anachronism)에 봉착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양 교수가 두 번째 단계로 성서 판소리가 어떻게 해당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처리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는 이를 역사적 풍경이라 부른다. 즉, 성서 이야기가 배경으로 삼고 있는

역사적 컨텍스트를 박동진의 창작 판소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수용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그는 특별히 성서적 사건과 판소리 청중들 사이에 있는 시대적 간격을 어떻게 메우고 있는가에 주목한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2장 1-2절은 예수의 탄생의 시대적 배경으로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통치시기로 설정하고 있다. 박동진은 이 시기에 해당하는 우리 역사를 백제 태조 온조대왕의 통치 시기와 동일한 것으로 설정한다. 이를 통해 소리꾼은 예수의 역사를 우리의 역사와 동일선상에 위치 시킴으로써 예수 이야기를 우리의 맥락에서 이해하도록 만든다. 이러한 양 교수의 분석 방법에 다소 시비를 걸자면, 예수의 탄생 이야기와 부활 이야기를 판소리로 재현할 때 필연적으로 동반되기 마련인 재현의 이데올로기를 살피지 못한 점이다. 슈바이처는 그의 기념비적인 저술, 『역사적 예수의 문제』에서 모든 시대의 예수전은 그 시대의 이념을 반영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계몽주의 시기에 쓰인 예수전은 계몽주의의 시대 이념인 이성의 관점으로 역사적 예수를 이해한다는 것이다. 즉, 자연 질서를 위배한 기적과 부활 이야기를 이성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라이마루스와 제퍼슨과 같은 계몽주의자들은 도덕교사로서만 예수를 이해한다. 그들은 산상 설교와 같은 예수의 윤리적 가르침만을 역사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 들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박동진의 <예수전>이 당시 유신 정권에 부정적이었던 기독교 방송국의 조향록 목사의 청탁에 의해서 만들어 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비슷한 시기에 시인 김지하는 <금관의 예수>라는 시나리오 작품을 발표했다는 것도 또한 유념해야 할 사항이다. 따라서 박동진의 <예수전> 탄생 배후에 자리한 시대적 삶의 풍경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라고 생각된다. 이는 양 교수가 말한 메타 비평의 중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한편 박동진의 창작 판소리의 사설을 문학적 풍경과 역사적 풍경으로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연행(performance)의 성격이 강한 예술 작품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해서 양 교수는 성서 판소리

가 지니는 미학적 특징에 주목 한다. 그는 이를 예술적 풍경이라 부른다. 이를 위해 그는 <예수전>, <모세전>, <팔려간 요셉>에서 사용되고 있는 음악적 차원을 살펴본다. 가령 음악적 장단을 어떻게 사용하여 이야기의 극적 효과를 높이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특히 한국적인 시적 정서를 자연 풍경 묘사에 담아 청자의 감정을 고양시키는 예술적 효과는 성서의 내용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지닌다고 평가한다. 어떻게 성서의 내용을 판소리라는 우리의 예술 형식 속에 탁월하게 담아낼 수 있는가에 대한 하나의 모델을 박동진의 창작 판소리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양 교수가 천착하고 있는 것은 박동진의 성서 판소리가 함의하고 있는 신학적 의미이다. 성서 신학자로서 그의 관점이 도드라져 보이는 대목이 바로 신학적 풍경이라 명명한 그의 전망이다. 그는 “종교적 내용을 담고 있는 이야기를 작품으로 재구성해내는 그 순간, 원천 본문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의미 또한 재구성된다”고 말한다 (p. 327). 때문에 양 교수는 박동진의 <예수전>에서는 성육신 사상과 메시야의 대망 사상을 발견한다. 또한 <모세전>과 <팔려간 요셉>에서는 해석적인 신관과 인과응보와 권선징악과 같은 전통적 지혜 사상을 찾아 내기도 한다.

5. 나오는 말

양 교수의 『판소리의 신학적 풍경』은 한동안 뜸했던 한국적 신학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소중한 책이라 생각된다. 박동진의 창작 판소리를 바라보는 그의 4가지 시선은 21세기의 한국 신학이 가야할 길을 재고하게 만든다. 그러나 양 교수가 제시한 방법론적 시각들이 다소 단선적으로 느껴진다. 성서의 신학적 테마와 주제를 일방적으로 창작 판소리에 강제한 느낌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필자의 소견으로 판소리는 그

자체로 종교적, 미학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일찍이 시인 김지하가 지적한 대로 판소리는 그들의 미학을 반영한다. 서양의 벨칸토 창법과 같은 높고 화려한 소리, 즉 천구성은 판소리 세계에서 가장 저급한 소리로 간주된다. 첫갈과 같이 곱삭은, 그야말로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다 경험한 수리성이야말로 최고의 소리로 귀명창들에게 평가받는다. 이를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고통과 고난을 산뜻하게 넘어서는 초월(超越) 보다는, 삶의 모순을 온몸으로 끌어안으면서 신에게 다가서는 옴과 같은 포월(抱越)의 믿음을 의미한다. 갯세마네의 기도는 예수의 포월적 자세를 보여준다.

우리 대다수는 현실세계에서 필연적으로 봉착하게 되는 고난의 문제를 산뜻하게 넘어서지 못한다. 그러나 판소리는 사회적 고통의 원인 제공자들을 풍자하며 희화화함으로써 고달픈 현실을 상대화는 힘을 제공해 준다. 다시 말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부조리한 악의 체제에 대한 촌철살인(寸鐵殺人)의 풍자를 통해 현실의 괴로움을 넘어서는 흥의 엑스타시를 판소리는 제공한다. 이러한 판소리의 기능은 다분히 종교적인 동시에 신학적이라 할 수 있다. 일찍이 종교학자 엘리아데는 성속의 변증법을 통해 가장 세속적인 것 속에 신성이 깃든다고 주장한 바 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 말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선포도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우리 시대의 현자, 장일순 선생은 언젠가 자신이 그린 얼굴 난초의 화제로 다음과 같은 뜻 깊은 글을 남긴 적이 있다. “언젠가 화장실에 갈더니 성경이 밀싹개가 되어 있더군, 역시 예수가 사람 살리더군.”

* 접수일 2014년 2월 20일, 수정일 2014년 2월 22일, 게재 확정일 2014년 3월 1일